

ISO 표준 제정의 무대 뒤에서

표준 제정 위해 연간 하루 평균 13차례 기술위원회회의 개최

“ISO 시스템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이 필요할 때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편집자>”



▲ 표준의 개발은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산업계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먼저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ISO 표준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 주택 파이프, 바닥, 창문, 컴퓨터, 프린터, 음식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천 가지 표준 중에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몇 가지만 주목하고 있으며, 표준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표준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ISO 시스템은 이러한 표준이 필요할 때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조율을 통해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표준의 개발은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산업계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먼저 시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국의 ISO 회원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계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표준 사이즈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은 혁신적인 기관에서 신기술의 채택과 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에서는 무역기술장벽을 도입할 때 보편사례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표준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ISO와 연

계를 맺은 국제기구에서도 새로운 표준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ISO 정책개발위원회인 적합성위원회(CASCO), 소비자위원회(COPOLCO), 개도국위원회(DEVCO)를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관련 ISO 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표준이 필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널리 사용하기에 적합한가를 입증할 것이다.

누가 표준을 개발하고 어떻게 합의하는가?

ISO 표준은 각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프로젝트위원회 포함)에서 개발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정부, 시험기관, 소비자협회, 비정부기구와 학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관심있는 모든 ISO 회원기관은 기술위원회에 정회원(P-member) 또는 옵저버(O member)로 참여할 수 있다. 각국 대표는 기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대표는 국내 기술위원회(Mirror Committee)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또는 지역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력관계(liaison)를 구축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안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이러한 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은 각국 ISO 대표기관에서 선출된 간사가 맡고 있으며, 작업을 리드하는 의장도 선출된다.

연간 하루 평균 13차례의 ISO 기술위원회회의가 개최된다. 작업 초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토론, 논쟁을 펼친다. 회의 중간에 서신으로 표준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표준개발 속도를 높이고, 여행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급히 다뤄야 할 주제나 이미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속성 절차(fast track)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제표준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DIS)으로 회람되어 ISO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된다. 초안이 승인되면 최종 국제표준인(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으로 회람된다. 여기서 승인되면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IS)으로 발간된다.

ISO 국제표준으로 발간되기 위해선
ISO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1/4 이상이 반대했을 경우
승인되지 않는다.



ISO 표준은 사면적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 ISO 국제표준으로 발간되기 위해서 ISO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1/4 이상이 반대했을 경우 승인되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표준도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 모든 ISO 표준은 발간 후 적어도 3년에 1회 유효성 검토를 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할지,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SO 표준이 자발적이라도 시장의 필요에 따라 널리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합의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ISO는 표준의 실용성을 보장한다. ☺

ISO 발간물

- ISO 표준은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 ISO Standard - 정식 국제표준
- ISO/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작업반 내에서 합의를 이룬 규범 문서
- ISO/TS(Technical Specification)-기술시방서, ISO 위원회에서 기술적 합의를 이룬 규범 문서
- ISO/TR(Technical Report)-기술보고서, 발간된 문서에서 규범 문서까지 다른 종류의 내용 수록
-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기술위원회가 아닌 워크숍을 통해 생성된 문서
- ISO Guide-ISO 정책위원회에서 개발한 문서